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기계식
박동에서 영감을 받아 구현한
아티스트 우드키드의 탐구적인
음악 작품

2023년 6월 27일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기계식 박동에서 영감을 받아 구현한 아티스트 우드키드의 탐구적인 음악 작품

소개

우드키드에 대하여

LESS'ENTIAL에 대하여

요약

- 프랑스의 뮤지션 겸 아티스틱 디렉터인 우드키드(Woodkid)와 바쉐론 콘스탄틴이 모던한 감각이 돋보이는 특별한 트랙을 출시하며 새로운 형태의 콜라보레이션을 선보입니다.
- 메종이 올해의 테마로 삼은 "Less'ential"을 음악적 및 시각적 측면에서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12비트 템포의 곡에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 사운드를 최초로 포함했습니다.
- 이는 1년 전 시작된 "One of Not Many 멘토십 프로그램"을 통해 런던의 애비 로드 스튜디오와의 콜라보레이션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실입니다.

올해, 프랑스 아티스트 우드키드가 메종의 연간 테마인 "Less'ential"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별하고 독창적인 곡을 발표하며 바쉐론 콘스탄틴과의 콜라보레이션에 더욱 풍성함을 더합니다. 타악기를 중심으로 한 리드미컬하고 간결한 이 곡에는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기계식 박동이 담겨 있으며, 동시에 위대한 음악적 리듬을 관장하는 유클리드 수학의 형태를 탐구합니다. 모던한 감각이 돋보이는 이 곡은 음악계와 하이 워치메이킹 분야를 하나로 이어주는 연결점이기도 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경험과 지식을 전승하는 "One of not Many 멘토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젊은 인재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멘토가 지닌 경험을 전수받을 기회를 제공하며 2018년 애비 로드 스튜디오와의 독창적인 콜라보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뮤지션 겸 아티스틱 디렉터 우드키드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멘토였습니다. 2022년 우드키드는 음악 분야를 위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One of Not Many 멘토십 프로그램"에 참여할 첫 번째 아티스트로 런던의 젊은 싱어송라이터인 이완 필립스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우드키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예 아티스트와 협업하며 지식과 예술적인 감각을 전수하는 작업은 뮤지션으로서의 특권과도 같습니다. 멘토와 견습생이라는 관계를 뛰어넘어 이완과 제가 함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저희 둘 모두에게 의미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기계식 박동에서 영감을 받아 구현한 아티스트 우드키드의 탐구적인 음악 작품

소개

우드키드에 대하여

LESS'ENTIAL에 대하여

요약

오늘날, 위치메이킹과 음악 사이의 유사점을 탐구하며 메종의 연간 테마인 "Less'ential"을 음악적, 그리고 시각적으로 모던하게 재해석한 우드키드의 독창적인 오리지널 곡과 함께 우드키드와 바쉐론 콘스탄틴의 콜라보레이션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간결하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느낌과 함께 타악기를 중심으로 리드미컬한 매력을 살린 곡은 음악의 주요 리듬을 관장하는 유클리드 수학의 형태를 세심하게 탐구합니다. 유클리드 리듬은 음악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부분의 리듬이 하나의 바 안에서 박자를 최대한 균일하게 분배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 수의 최대공약수를 의미하는 유클리드 호제법을 통해 형성된다는 원칙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현존하는 주요 리듬은 모두 이처럼 간단한 수학적 법칙에 의해 제어되며, 겉보기에 음악계에서 폭넓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리듬을 조합하여 무한히 다양한 음악적 형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드키드의 시그니처가 돋보이는 화려한 작품은 현대 음악의 거장이 연주한 마림바, 클라리넷과 같은 샘플로 구성되었으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시간당 12비트 템포로 위치메이킹과 음악 사이의 공통분모를 이끌어냅니다. 또한 탱고, 뱀베, 보사노바와 같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 속 멜로디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리듬을 포함한 여러 박자를 재현했습니다. 음악이 지닌 보편적인 서정성은 하이 위치메이킹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탁월한 정확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수학적 법칙이 만물을 관장한다는 보편적인 철학적 원칙을 정립시킵니다. 물론 위치메이킹과 음악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리지널 트랙은 리드미컬한 구성 측면에서 곡을 문자 그대로 표현한 건축 오브제가 등장하는 모션 디자인을 통해 시각적으로도 표현됩니다. 현대적인 이미지와 하이 위치메이킹 사이의 연결을 상징하는 우드키드의 음악 작업은 유클리드 리듬의 원칙과 원형의 순환이 아우르는 범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유클리드 리듬 속 수학적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소프트웨어 코딩을 모두 수정해야 했던 우드키드의 모습은 기계식 칼리버의 작동 방식을 완벽히 이해한 뒤에 그 탁월한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위치메이커와 닮아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기계식 박동에서 영감을 받아 구현한 아티스트 우드키드의 탐구적인 음악 작품

소개

우드키드에 대하여

LESS'ENTIAL에 대하여

요약

우드키드에 대하여

프랑스의 전설적인 가수, 프로듀서 겸 영상 감독인 우드키드는 2년간 19개국을 돌며 20만 명이 넘는 관객 앞에서 최근 2020년 출시된 S16 앨범을 기반으로 한 같은 이름의 S16 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S16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백만 부를 판매하고 그래미상 2개 부문에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2013년 데뷔 앨범, 골든 에이지(The Golden Age)의 후속작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우드키드는 백만 장에 가까운 앨범을 판매했으며, 세 차례 그래미상 후보로 올랐고, 케이티 페리(Katy Perry)의 "Teenage Dream",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Back To December", 라나 델 레이(Lana Del Rey)의 "Born ToDie", 해리 스타일스(Harry Styles)의 "Sign of the Times" 뮤직 비디오 감독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니콜라 제스키에르(Nicolas Ghesquiere), 뉴욕 발레단(New York City Ballet), 조나스 쿠아론(Jonas Cuaron)과 협업하여 영화 디시에르토(Desierto)를 위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올림픽 성화 인수식(Handover Ceremony of the Olympic Games)을 위한 사운드트랙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Less'ential에 대하여

바쉐론 콘스탄틴은 매년 매뉴팩처의 정신을 고스란히 구현하는 구체적인 테마를 바탕으로 제네바 Watches & Wonders에 참석합니다. 2021년 "Classic with a Twist", 2022년 "The Anatomy of Beauty"에 이어 2023년 등장한 "Less'ential"은 올해의 신제품과 부스 구조를 상징하는 테마입니다. 메종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탁월한 기술력과 독창적인 예술 공예가 위치메이킹 활동의 정수로 승화된다는 접근법, 그리고 정교한 기계적 역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름답게 균형 잡힌 형태와 순수한 디자인이 미학적으로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접근법을 표현합니다. 이제 간결함은 세련미로 거듭나고, 절제된 표현은 화려한 기교로 새롭게 태어나고, 매끈하고 유려하게 흐르는 듯한 디자인에서는 디테일 하나하나에 깃든 섬세함을 드러냅니다. 가장 간결한 형태로 덜어낸 바쉐론 콘스탄틴 위치메이킹 특유의 우아한 품격은 정교한 기술력으로 확실한 아름다움을 구현한 타임피스로 구현되어 하이 위치메이킹의 핵심 요소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기계식 박동에서 영감을 받아 구현한
아티스트 우드키드의 탐구적인 음악 작품

소개

우드키드에 대하여

LESS'ENTIAL에 대하여

요약

요약

1년 전 2개 파트로 구성된 애비 로드 스튜디오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시작된 바쉐론 콘스탄틴과 프랑스의 뮤지션 겸 아티스틱 디렉터 우드키드의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사운드가 포함된 특별하고 현대적인 곡을 통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음악 리듬을 지배하는 유클리드 수학의 형태를 탐구하고, 동시에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원칙을 연상시키는 아티스트의 특별한 음악 작품을 소개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리크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